

언 제 

무너질 지

 몰라

S#0 [타이틀]

검은 화면.

우웅---... 되는 땅울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

.

.

곧이어 나타나는 타이틀,

.

.

.

< 언제 무너질 지 몰라 >

.

.

.

S#1 [대학교 후문 도로/낮/밖]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한적한 도로.

그 도로 위엔 한 여자가 홀로 누워있다.

도로 바닥에 귀를 맞대어 어느 소리에 집중하는 민소율(여, 23).

무언가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듯, 경직된 표정.

이때, 들려오는 카페 안 공간음.

그리고, 소율의 남자친구 이강윤(남, 25)의 목소리.

강윤

(V.O) 이해가 안가..

S#2 [카페/저녁/안]

옷차림부터 메이크업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어 보인다.

한껏 신경쓴 듯 꾸민 강윤.

알 수 없는 누군가와 테이블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강윤

얼마 전에 알게 됐어.

나 몰래 몇 번 그러던데.

고쳐주고 싶은데.. 이해가 안가서.. 고치질 못하겠어.

S#3 [학교 앞 서점/낮/밖]

서점 앞,
소울과 강윤은 서로 와플을 먹으며 바라보고 있다.
입가에 크림을 묻히고 배시시- 웃는 소울과 덩달아 웃는 강윤.

강윤
(V.O) 평소엔 아무 문제가 없거든?

CUT TO

자신의 와플과 소울이 한 입 베어먹은 와플을 들고 서있는 강윤.
강윤의 시선은 여자 화장실에 가있다.
소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강윤,
뒤쪽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자 뒤를 돌아본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소울. 강윤은 황당해 한다.

강윤
(V.O) 화장실 간다더니.. 참, 나한테는 숨기고 싶었나봐.

S#4 [학교 뒷뜰/낮/밖]

앉은 자세로 풀숲 사이를 골똘히 보는 소울,
그런 소울 옆에 붙어 앉는 강윤.
소울과 강윤 앞에 무너져있는 돌탑.

강윤
(V.O) 애가 예술 하는 애여서.. 사실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

무너진 돌탑을 흥미롭게 바라보는 소울과,
그런 소울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강윤.

강윤
(V.O) 무슨 일종의 영감 얻기? (웃음) 그런 줄 알고 넘어갔었지.

S#5 [기숙사 뒷편의 공터/저녁/밖]

드넓은 공터.
공터 구석 부분에 소울이 누워있다.
그런 소울을 몰래 담배를 피며 쳐다보는 강윤.
강윤은 다소 착잡해보인다.

강운
(V.O) 물어봤냐고?

S#6 [카페/저녁/안]

얼음만 남아있는 강운의 커피잔.
강운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대답한다.

강운
(정색을 하는) 당연하지..

S#7 [학교 근처 벤치/해질녘/밖]

격렬히 싸우는 의문의 한 커플.
벤치에 앉아 커플을 바라보고 있는 소울과 강운.
흥미로워 하는 강운과는 반대로,
어딘가 불편한 듯 몸을 들썩이는 소울.
소울은 자신의 무릎 위에 있는 헤드셋을 만지작 거린다.
강운은 결눈질로 소울의 표정을 살피다 입을 연다.

강운
그.. 소울아.

소울
응?

강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소울
응, 뭔데?

강운
몇주 전부터 가끔씩 네가.. 막 바닥에 누우는거.. 왜.. 그러는거야?

소울
아.. (머쓱해하며) 봤구나.. 바닥에 눕는거?

강윤
응, (웃음) 바닥에 눕는거.

소율
(살짝 웃더니) 사실 이게.. 눕는게 아니라.. 듣는거야.

강윤
들어? 뭐를?

소율
그냥.. 흑시나 하는거.

강윤
흑시나 하는 게 뭔데?

소율은 머뭇거리다 다시 자리를 고쳐 앉고 말 없이 강윤에게 미소를 짓는다.
여전히 궁금해하는 강윤.
소율은 손가락을 꼬깃거리다 입을 연다.

소율
내가 많이 어렸을 때.. 시골의 낡은 주택에 살았었어.
그때 난 집에 혼자였고, 12시가 돼도 부모님이 안들어오시는거야.
그래서 되게 무서웠었어.
우리 집 주변엔 이웃도 없고 건물도 없는 무서운 시골 동네였거든.
한 1시간 동안인가?
그때 동안 부모님이 오실때까지 흑시나 도둑이라도 올까봐,
식탁 아래에 숨어있었어.
내가.. 상상력이 좀 풍부했거든. (웃음)
그런데... 그러더니....
집 바닥이... 드드드드- 거리더니...
갑자기 흑! 땅이 꺼진거야...
(부끄러워 하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말도 안된다는 강윤의 표정.

소율
그때 병문안 왔던 주민들이 처음엔 다들 지진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봤더니.. 그 지진인줄 알았던게..
사실 싱크홀이였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싱크홀.
... 이 사실을 알게 됐을땐 난 겨우 8살이었어.
트라우마로 남기에 완벽한 나이잖아. (웃음)

그래서.. 그래서 그랬던거야.

강윤은 소울의 이야기를 듣다 생각에 빠진 듯 표정을 짓는다.

소울

그때부터 내가 어딘가에 두려움을 느낄 때면,
가끔씩 습관처럼 땅에 귀를 갖다대.
날 아프게 했던 구덩이가 다시 날 덮칠까봐.

말을 하다 살짝 울먹거리는 소울을 다독여주는 강윤.

강윤

(V.O) 싱크홀이라니.. 이유가 싱크홀이었다니..

S#8 [카페/저녁/안]

테이블 앞에 몸을 기울여 이야기 하는 강윤.

강윤의 커피잔이 강윤과 맞닿으며 앞으로 미끄러진다.

커피가 가득 찬 맞은 편 커피잔에 부딪히는 강윤의 빈 커피잔.

강윤, 눈을 부릅 뜨며,

강윤

너였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

S#9 [학교 근처 벤치/해질녘/밖]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소울과 강윤.

이 둘을 향해 한 여자가 걸어온다.

소울

어? 벌써 오셨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당근이지요?

여자

(꾸벅 인사하는) 네! 안녕하세요.

홀로 벤치에 앉아 소울과 여자를 보고 있는 강윤.

무언가 궁금한 것이 생각난 듯 보이는 강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강윤은 소울을 향해 걸어간다.

소울
(헤드셋을 가리키며) 여기랑.. 여기 부분에..

강운
그.. 소울아.

소울은 여자와 중고거래를 하던 중,
말 없이 강운을 바라본다.

강운
..뭐가 두려웠던거야?

소울
응?

강운
두려워서 그런거라며.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거야?

.
. .
. .
. .

카페의 여자
(V.O)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S#10 [카페/저녁/안]

흥미 가득한 표정으로 강운에게 말을 거는 미모의 여자.
강운이 지금껏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던 여자 박혜연(여, 25),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다.

강운
말했더니...

CUT TO

소울의 어두운 표정.

CUT TO

강운
모르겠어.. 대답을 안해주니깐.

혜연
(웃으며) 봐바. 그런 애라니까?

살짝 웃는 강윤.
강윤과 혜연 사이에 몇초 간의 정적이 흐른다.
서로 알 수 없는 눈빛을 주고 받는 강윤과 하민.

혜연
(빨대를 만지작 거리는) ...필래?

S#11 [카페 옆 골목/저녁/밖]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며 담배를 피는 강윤과 혜연.
아이코스를 든 혜연이 먼저 입을 연다.

혜연
계속 만날꺼야?

강윤
모르겠어.

혜연
(웃음) 뭘.. 몰라.

강윤
(웃음) 하.. 괜히 고백했나봐. 그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혜연
와.. 이강윤 말하는거봐 ---- (웃음) 내가 개였으면 울었다 그냥.

웃음을 주고받는 강윤과 혜연.
능글맞은 표정의 강윤,
몸을 슬쩍 혜연 앞으로 기댄다.

강윤
(주위를 살피며) 여긴 진짜.. 어둡다. 사람도 없고..

혜연
...

강윤
(능청 맞게) 그치?

바닥에 콩초를 버리는 혜연.
혜연은 강윤을 이곳이 바라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온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의 강윤과 혜연.
강윤은 꿈틀거린다.
혜연, 강윤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문지른다.

혜연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강윤
...응?

혜연
어떻게 해야될 지.

S#12 [버스 정류장/저녁/밖]

가로등이 켜진 지 얼마 안된 저녁.
정류장 의자에 말 없이 앉아 있는 소울과 강윤.
둘의 표정은 어두워 보인다.
오랜 정적 끝에 먼저 입을 여는 강윤.

강윤
소울아.

소울
...

강윤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거야?

소울
...

강윤
... 소울아.

어두운 표정의 소울은 따뜻한 표정의 강운을 바라본다.
강운은 소울을 한참 바라보다 키스를 한다.
두 눈을 질끈 감은 강운과,
반쯤 떠있는 소울의 두 눈.
붙어있던 두 입술이 서서히 떨어진다.

강운
만약 나 때문에 그러는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밖에 없을거야.
... 진심이야.

얇은 미소를 짓는 소울.
무릎 위에 올려놔던 가방을 어깨에 매는 소울,
강운에게 인사를 하곤 버스 쪽으로 걸어간다.
혼자가 된 강운, 떠나는 소울에게 손을 흔든다.
흡연 구역으로 걸어가는 강운, 담배를 물고 라이터를 켜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저 멀리 있던 소울이 다시 강운 쪽으로 빠르게 걸어온다.
당황해하는 강운의 표정.
강운의 얼굴이 민망해질 만큼 가까워진다.

S#13 [몽타주 시퀀스]

골목, 혀를 쉬는 강운과 혜원.
/
정류장, 강운 앞에 바짝 선 소울.
/
골목, 혜원의 옆머리를 귀 뒤로 쓸어올리는 강운의 손.
반지가 끼었다.
/
공원, 한 가운데 홀로 놓여 있는 허름한 식탁.
그 식탁 아래 웅크려 숨어 있는 소울.
/
골목, 강운을 바라보는 혜원의 매혹적인 표정.
/
정류장, 소울을 쳐다보는 강운. 무서워하는 강운의 표정.
/
소울은 강운의 가슴팍에 귀를 갖다댄다.
소울은 서서히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한다.

쿵쿵.. 쿵쿵.. 강윤의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려오더니,
거대한 무언가가 우르르 콰강-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디졸브 된다.
심장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무너지는 굉음은 점점 더 크게 들려온다.
마지막으로, 쿵! 하는 거대한 굉음에 소윤은 눈을 뜬다.

.

.

.

그 거대한 굉음은 마치,
거대한 싱크홀과 같다.

FIN.